

논란에도 **신기록** **홍행** **열풍** 마블의 역사는 지금부터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마블 영화중 개봉첫날 수익 1위
한국에선 6일 만에 500만 돌파
히어로 전원 출동에 관객 열광
스크린독과점·번역 오역 논란

◆히어로 총출동에 관객 열광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신 기록을 수립하며 마블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북미에서 개봉 첫날 무려 약 1억596만7000불 수익을 거두며 역대 개봉 첫날 오프닝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마블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으로 종전 마블 작품 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015)의 개봉 첫날 기록은 8442만4532불, '어벤져스' (2012)는 8081만3985불이었다. 역대 마블 영화 중 개봉 첫날 1억불 이상 수익을 달성한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개봉 영화 최대 평점 사이트 시네마 스코어에서 A등급을 받으며 역대 최고 흥행과 호평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전세계에서는 단숨에 누적 수익 약 1억7850만 불 수익을 거둬, 월드 와이드 누적 2억8446만7000불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무한 흥행 행보를 걷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새로운 조합의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렸다.



마블 스튜디오의 히어로가 총출동한다는 소식은 개봉 전부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며 개봉 6일만에 누적 관객 수 525만을 돌파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스칼렛 위치 등 기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활약한 히어로들이 전원 컴백함은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블랙 팬서, 윈터 솔저, 스타로드를 비롯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까지 새롭게 구성된 어벤져스 멤버들과 상상 그 이상의 스토리 전개가 팬들을 열광케 한다.

◆스크린 독과점·자막 오역 논란

경이로운 기록을 갱신 중이지만, 영화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자막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개봉당일인 25일,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스크린 갯수는 2461개로, 전체 46.2%에 달했다. 상영 횟수는 총 1만1430회, 점유율은 72.8%였다. 함께 개봉한 상영 횟수 2위인 국내영화 '살인 소설'은 그보다 한참 떨어진 842회에 그쳤고, 점유율도 5.4%에 불과했다. 1위

와 2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것.

주요 시간대 상영은 물론, 일부 영화관에서는 새벽 시간대까지 상영해 일부 극장에서는 하루 종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 상영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잘 나가는 영화만 팍팍 밀어주는 비정한 시장 논리가 영화 시장 생태계에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또 한가지 논란에 휩싸였으니 자막 오역이다. 번역을 맡은 박지훈 번역가가 영화 결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를 오역하면서 연일 관객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해석의 차이일 뿐, 자막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도 마블! 세계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는 마블 코믹



스의 만화에 기반을 두고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가상 세계관을 말한다.

때문에 마블의 영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모든 영화 엔딩크레딧 끝에 쿼키 영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다음 작품에 대한 복선 또는 지난 작품과의 연관성이 깔려있다. 마블 영화를 더욱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해봤다. 순서는 페이지1~4로 나뉜다.

'페이지1'은 어벤져스 영웅들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그린다. '퍼스트 어벤저', '아이언맨', '인크레더블 헐크', '아이언맨2', '토르:천둥의 신', '어벤져스'가 페이지1에 해당된다. 각각의 히어로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벤져스 팀을 꾸리게 됐는지 과정이 담겼다.

'페이지2'는 마블 히어로와 어벤져스의 스토리 그리고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첫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의 내용을 그린다. '아이언맨3'를 시작으로 '토르:다크월드', '캡틴 아메리카:윈터 솔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엔트맨'이 해당된다.

'페이지3'부터는 어벤져스 팀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며 화려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스파이더맨:홈커밍', '토르:라그나로크', '블랙 팬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이에 해당한다.

'페이지3'에서는 아직 3편의 영화가 남아 있다. 오는 7월 엔트맨의 새로운 이야기 '엔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하며, 캡틴 마블이 첫 등장하는 '캡틴 마블'이 내년 3월에, 그리고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속편인 '어벤져스4(제목 미정)'가 2019년 5월 개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네이버영화·포스터/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영유아 콘텐츠채널 '잉글리시 젬' 론칭

CJ E&M 북미권 최신 콘텐츠 확보

CJ E&M이 5월 2일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 english gem(잉글리시 젬)을 론칭했다.

english gem은 2~6세 미취학 아동을 메인 타겟으로 현지 아이들이 즐겨보는 북미권 최신 영어 콘텐츠를 엄선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이다. english gem은 국내 최초로 TV, VOD, 모바일 앱이 결합된 차별화된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PBS, BBC 등 영미권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확보해 현지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즐기는 신규 에피소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에미상(E Emmy Awards) 수상작 등 프리미엄 콘텐츠 신작

들을 국내 최초로 방송한다. 애니메이션, 동요, 율동, 아트&크래프트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현지 아이들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만들면서 아이가 영어를 재미있게 즐기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gem은 론칭을 기념해 2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가입하지 않아도 English gem TV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시청 프로모션과 함께 다양한 가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SK브로드밴드 Btv 187번에서, 3일 현대HCN 298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어 그 외 플랫폼에서도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준비 본격화

탁구·농구 등 7개 종목 '긍정' 의향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부터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문화부는 정책기획관이 주재했던 '남북체육교류 태스크포스(TF)'를 1차관 주재로 격상한 한편, 이번 주부터 대한체육회와 남북 단일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

문화부 관계자는 "단일팀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통일부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단일팀 추진이 경기 단체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면 혼선이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 단일팀 구성 의향을 묻는 1차 수요 조사에서는 아시안게임 40개 종목 중 탁구와 농구, 유도, 정구, 하키, 카누, 조정 등 7개 종목이 '긍정' 의향을 표한 바 있다.

체육회도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실행에 속도를 낸다.

단일팀 성사를 위해선 단계적으로 ▲ 희망 경기단체의 정확한 의사 확인 ▲ 북측과 단일팀 구성 논의 ▲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등 국제기구와 협의 ▲ 아

시안게임 출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희망 경기 단체가 요구하는 엔트리 확대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 파악하고,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OCA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단일팀이 성사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옛날에는 체육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도한 반면 OCA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일팀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6 | 해질 / 19:23

5월 2일

음력 : 3월 17일

수도권 날씨

21~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5/20

동두천 16/21

가평 14/20

파주 15/20

서울 17/21

양평 16/21

용인 17/20

평택 16/20

수원 17/20

인천 15/18

백령도 10/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지휘봉을 내려놓은 **황선홍 전 감독** (사진)이 구단 SNS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시즌 2승 4무 4패의 부진으로 팬들에게 퇴진 압박을 받다가, 지난 달 30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 '골프 여제' **박인비**가 2주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2위는 평산산(중국), 3위는 렉시 톰프슨(미국)이다.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방문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하고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졌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들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으로 21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정상에 되찾은 **리디아 고**(미국)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클래식에서 2연승을 노린다.

▲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트리플A 구단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카й박스에서 뛰는 **최지만**이 내슈빌 사운즈(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와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 **황상운**이 2018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